

남 북 협 력 동 향

(2007.1.1 ~ 3.16)

■ 2006년 남북 인적·물적 교류 동향(1.4, 통일부)

○ 인적 왕래

단위: 명

	2005	2006	증감
남한주민 북한방문*	87,028	100,838	15.9%
북한주민 남한방문	1,313	870	△ 33.7%
계	88,341	101,708	15.1%

* 금강산 관광객을 제외한 수치임.

- '06년 분야별 북한방문 인원은 경제 87,845명, 사회문화 4,324명, 이산가족 2,127명, 대북 지원 6,530명 등

○ 남북 교역

단위: 천 달러

	2005	2006	증감
상업적 거래	689,541	928,073	34.6%
비상업적 거래	366,213	421,667	15.1%
계	1,055,753	1,349,740	27.8%

- '06년 교역액 구성내역은 일반교역 304,134천 달러(22.5%), 위탁가공교역 252,958천 달러(18.7%), 경제협력사업 370,981천 달러(27.5%), 대북 지원 419,255천 달러(31.1%) 등

- 금강산 관광객
 - 2006년 금강산 관광객은 234,446명으로 2005년 298,247명 대비 21.4% 감소

■ 2006년 남북 해상수송량 사상 최대(1.10, 해양수산부)

- '06년 정기항로를 통한 남북한 수송실적은 12,329TEU로 사상 최대
 - 이중 남한→북한은 5,469TEU, 북한→남한은 6,860TEU를 기록
 - 북측으로는 지원물자(쌀, 비료 제외)와 위탁가공용 원부자재 등이 수송되었고, 남측으로는 위탁가공 완제품, 농수산물 등이 수송됨.
 - 정기항로는 부산~나진 구간 추싱호(100TEU 적재), 인천~남포 구간 트레이드포춘호(253TEU)가 월 4회 운항

■ 중국의 대북 주요품목 수출동향(1.11, KOTRA)

- '06년 1~11월간 북중간 교역액은 1,536백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.4% 증가
 - 중국의 대북 수출액은 1,117백만 달러로 12.3%증가했고, 수입액은 418백만 달러로 9.4% 감소함.
- 주요 품목 대북 수출액

단위: 백만 달러

품 목	'05	'06	증 감
식량	81	48	△41%
연료 및 비료	277	339	22.5%
사치품목*	29	35	21.6%

* 영상오디오기록기, 담배, 주류, 승용차 등

■ 「개성공업지구 환경보호규정」 제정(1.11, 통일부)

- 「개성공업지구 환경보호규정」이 북측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(제82호, '06. 11.21)에 따라 제정·공포
 - 동 규정은 개성공단의 자연환경보존 및 오염방지 등 4장 39개 조항으로 구성되었으며, 남측의 「환경정책기본법」에 준하는 법령임.

■ 북한, 외국기업 지원 법률사무소 개설(1.11, 연합뉴스)

-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에 투자하는 외국기업들에게 전문적인 투자관련 상담을 해주는 법률사무소가 최근 평양에 개설
- 평양법률사무소는 독자적인 법인으로 외국인 투자기업과 해외동포, 북한내 기관·기업·단체·주민을 상대로 법률서비스를 제공
- 외국투자관계법과 개성공업지구 및 금강산관광지구법 등 북한의 법률제도 뿐만 아니라 투자대상 선정과 관련한 상담서비스도 제공

■ 북한-러시아, 경제협력 본격화(1.18, 내일신문)

- 러시아의 대북 채무 탕감, 철도현대화 사업 등 최근 북한과 러시아간 경제협력이 본격화되고 있음.
- 러시아는 북-러 채무협상(12.17~22)에서 북한의 대러시아 채무 80억 달러의 80%를 탕감하는데 합의
- 나진항-햇산간 철도 현대화 사업 추진('06.7월에 착공)
 - * 햇산은 러시아 연해주의 북·러 국경지대에 위치
- 오는 3월 북한과 러시아는 통상경제협력위원회를 개최하여 북한 노동력 활용방안, 철도연결사업, 러시아 생산 전력의 대북 공급, 러시아산 원유의 북한내 가공 등을 협의할 예정

■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, 북·중 무역 증가(1.18, 연합뉴스)

- 유엔의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, '06. 11월중 중국과 북한의 무역액은 전년 동기 대비 22% 증가한 1억 5,400만 달러를 기록
- 반면, 한국, 대만, 브라질, 일본과의 무역액은 감소
- 같은 기간 한국의 대북 교역은 9% 감소한 9,400만 달러에 그침

■ 개성공단 중단에도 기업 손실보조 가능(1.25, 통일부)

- 정부가 25일 제179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고 남북협력기금 손실보조제도 개선안을 의결

- 개선안에 복측은 물론 우리 당국이 불가피하게 개성공단 사업을 중단할 경우에도 약정을 맺은 기업들이 손실을 보조받을 수 있는 내용을 추가
- 또한 손실보조 수수료율도 경협시 경우 현행 0.7%에서 0.5%로, 교역은 0.9%에서 0.8%로 각각 인하

■ 미국, 대북 수출 허가제 재 실시(1.29, 미 상무부 관보)

-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(BIS)은 수출관리규정(EAR)을 개정하여 북한과 관련해 식량 및 의약품은 제외한 모든 품목의 수출과 재수출 시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 허가제를 실시

* 미 상무부가 확정한 북한에 수출할 수 없는 사치품 목록

- 담배, 술(와인, 맥주, 양주 등), 보석
- 럭셔리 시계, 팔찌, 지갑 및 고급 금속 케이스가 있는 물건들
- 의류 및 패션상품 :
가죽제품, 실크제품, 모피, 인조모피, 디자이너 의류, 패션 액세서리(핸드백, 디자이너 만년필, 실크 스카프), 화장품, 향수
- 전자제품 :
플라즈마, LCD TV, 비디오 모니터 및 수상기, 29인치 이상 모든 TV, DVD플레이어, PDA, MP3 플레이어 등 개인 디지털 장비, 랩톱 컴퓨터
- 교통수단 :
요트 및 앤틱 차량, 럭셔리 차량(대중교통 수단을 제외한 자동차 전부), 레이싱 카, 스노모빌, 오토바이, 스쿠터
- 여가 및 레저용품 :
악기, 스포츠 용품, 예술 작품(그림, 조각, 동상 포함), 골동품(100년 이상 된 것), 희귀동전과 수집품, 본 차이나, 크리스탈 제품

- 대북 사치품 금지 목록과 방법도 확정해 시행
- 미국은 1999년 북한과의 미사일 협상 타결에 따라 2000년 6월 대북 수출허가제를 폐지 하였으나 지난해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허가제를 다시 시행하는 조치를 준비

■ 북한산 모래 채취료 60%가량 인상(1.30, 연합뉴스)

- 북측 모래 생산회사인 '조선신진경제연합체'와 판매사인 '개선무역총회사'는 '오는 3월 1일부터 모래 채취료를 1m³당 1.6달러(한화 1,500원)에서 2유로(한화 2,400원)로 인상 하겠다'고 남측 무역상들에게 통보

- 북측 모래는 서울, 인천,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의 건설현장에서 거의 전량 사용되고 있으며 수도권 바닷모래 공급량의 60%이상을 북측 모래가 차지
- 지난해 북한산 모래 반입량은 960만 m^3 (1,516만t)으로 1 m^3 당 채취료가 900원 인상될 경우 90억원에 가까운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

■ 체코, 북한 노동자 비자발급 연장 중단(1.31, 워싱턴 타임스)

- 체코 내무부는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를 언급하며 “북한 사람들에게 취업 비자를 새로 발급하지 않기로 하고, 이미 발급된 비자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”고 발표
- 현재 체코에는 400여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음
- 미 국무부 및 인권단체들은 이들 임금 가운데 절반이 김정일 체제의 재정으로 유입된다고 지적

■ 개성공단 누적 생산액 1억 달러 초과(2.2, 연합)

- 개성공단관리위원회는 2일 “지난 1월 1,200만 달러 어치를 생산하면서 개성공단 누적 생산액이 총 1억 달러를 돌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”고 발표
- 개성공단 생산액은 2005년 1,500만 달러, 2006년 7,400만 달러로 작년 말까지 총 8,900만 달러를 기록

■ 북한, 블라디보스토크 개발 참여 의사 밝힘(2.5, 통일부)

- 나훗카 주재 북한 총영사 심국룡은 1월 30일 연해주 주의회 의장과의 면담에서, 블라디보스토크 인프라 개발에 참여 의사를 밝힘
- 북한은 노동력, 시멘트, 유리 및 건축 재료들을 제공할 계획임
 - * 연해주, 하바로프스크주 등 극동지역을 중심으로 북한의 벌목, 농수산업, 건설부문의 단순 노동자 1~1.5만명 진출
 - * 나훗카는 시베리아철도 지선의 종점으로서, 동해 북단에 있는 러시아의 중요한 수출항이자 어업기지로써 부동항(不凍港)임

■ 북한, 블라디보스토크에 민경련 사무소 개소(2.7, 연합뉴스)

- 북한은 지난해 12월 1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민족경제협력연합회(민경련) 사무소를 마련하고, 평양으로부터 3명의 직원을 파견
- 블라디보스토크 민경련 사무소 측은 남측과 경제협력을 적극 모색 중이며 최근 대북 지원단체 및 남북교류 단체 관계자들과 경협 방안 협의

■ 북핵 6자회담 타결(2.13, 연합뉴스 등)

- 남·북한, 미국, 중국, 일본, 러시아 등 6개국은 2월 13일 「9·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」에 합의하고, 「대북지원부담의 분담에 관한 합의 의사록」을 채택
- 이번 합의의 핵심은 ‘행동 대 행동’원칙에 따라 북한의 단계별 핵 폐기에 상응하여, 미국 등 5개국은 북한에 에너지 지원과 관계개선을 추진한다는 것임

<합의안의 주요 내용>

- 핵폐기의 초기단계로서 60일 이내에 북한은 영변 핵시설의 폐쇄·봉인,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사찰을 수용하며, 기타 5개국은 북한에 중유 5만톤을 지원
- 다음단계로서, 북한은 현존하는 모든 핵시설의 불능화(disabling) 조치를 취하며, 기타 5개국은 중유 95만톤 상당의 에너지와 식량을 제공
- 테러지원국 지정, 적성국 교역법 종료를 목표로 한 북·미간 및 북·일간 관계개선을 위한 논의
- 합의의 이행을 위해 ▲한반도 비핵화, ▲미·북 관계 정상화, ▲일·북 관계 정상화, ▲경제 및 에너지협력, ▲동북아 평화·안보체제 등의 5개 워킹그룹을 구성

■ 러시아, 북 채무 대폭 탕감 예정(2.13, AP, 2.15, 조선)

-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14일 6자 회담에서 북핵 문제가 타결됨에 따라 북한의 대 러시아 부채가 대폭 탕감될 것이라고 발표
- 러시아의 대북 채무 대폭 탕감은 6자회담의 결과로 대북 에너지지원을 하게 될 경우 부담을 줄이거나 벗어나려는 의도로 해석
- 북한과 러시아는 2006. 12.17~22, 80억 달러로 평가되는 북한의 대러시아 채무를 탕감하기 위한 협의를 한 바 있음

■ 무디스, 북한 한국식 시장경제모델 수용해야(2.21, 미국의 소리(VOA))

- 국제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(Moody's)의 토머스 번 국장은 개성공단의 성공을 위해서는 북한이 한국의 자유시장경제 모델을 수용하고, 핵 문제를 조속해 해결해야 한다고 언급
- 2002년부터 취해진 북한의 경제개혁 노력은 임시적이었으며, 인플레이션과 통화가치 하락 등 부정적 결과만 낳았다고 함

* 토머스 번 국장은 앞서 9일 개성공단을 방문하였으며 “개성공단은 남북한의 희망적 미래”라며 개성공단을 긍정적으로 평한 적 있음

■ 북한-호주 합작 신용회사, 성공리에 운영중(2.23, 연합)

- 북한과 호주의 금융합작법인인 '조-마 신용회사'가 북한주민들을 대상으로 대출사업을 성공리에 운영중
- 이 합작법인은 북한 재무성과 마라나타 신탁회사가 50%씩 투자해 설립되어 주로 북한의 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에 평균 2천 유로의 소규모 대부금을 12%의 이자율로 대출
- 이 법인에서 대출을 받은 개인이나 기업들이 파는 상품들은 주로 음식, 비닐봉지, 화장지, 약품 등의 소비재가 주종임

- 이 합작법인은 '04. 7월부터 영업하고 있는데, 대출 회수율이 100%에 가까운 정도로 양호하다고 함

* 마라나타 신탁회사는 호주의 부호인 부소씨에 의해 지난 1975년 설립되어, 주로 제3세계 가난한 국가들의 사람들에게 소규모 대부금을 제공해 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 오고 있음

■ 내금강 관광, 4월부터 가능해질 전망(2. 25, 연합)

- 현대아산에 따르면, 북한과의 내금강 관광 실시 협의가 순조로워, 이르면 4월초에 관광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힘
- 향후 남북 기술자들이 공동으로 내금강 도로, 관광코스, 시설 보수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

■ 북한, 비단섬을 금융중심 경제특구로 개발 추진(2. 28, 베이징 연합)

- 대북 금융제재가 완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북한이 신의주 인근 압록강 하구 비단섬을 금

용중심 경제특구로 개발 추진

- 베이징의 북한 소식통들은 28일 신의주 남쪽과 비단섬을 연결하는 직통 도로가 거의 완공 단계이며 비단섬과 중국 단둥시 동강을 연결하는 교량도 건설되고 있다고 밝힘
- 건설용 자재 등은 중국이 제공 중이며 이들 교량이 완공되면 비단섬은 중국과 북한을 가장 짧은 시간에 통과하는 교통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예상

■ 제20차 남북 장관급회담(3. 2, 공동취재단)

- 남북은 2. 27~3. 2 평양에서 제20차 장관급 회담을 개최하고, 6개항의 합의사항을 공동보도문 형식으로 발표

※ 남북 대표단 구성

- 남한 : 이재정 통일부장관(단장), 진동수 재경부차관 등 5명,
- 북한 : 권호웅 내각 책임참사(단장), 주동찬 민경협 부위원장 등 5명

- 주요 합의내용

- 남북대화의 재개와 2·13 합의 이행 노력
- 이산가족 화상상봉을 3. 27~29, 상봉행사를 5월 초순 금강산에서 개최
- 상반기 안으로 열차시험운행을 실시
- 남북 적십자회담을 4. 10~12일 금강산에서, 경추위를 4. 18~21일 평양에서 개최

■ UNDP, 대북 사업 중단 발표(3. 3, 연합)

- 유엔 개발계획(UNDP)이 2일 대북 사업 중단을 발표
 - 중단되는 사업은 2005-2006 사업과 2007-2009년 사업 조정이 대상이 됨
 - 중단 이유로는, 경화지급 중단, 현지직원 채용 방식 변경과 같은 UN의 투명성 제고 조치를 북한이 거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
- UNDP는 북한이 지난 1월 UNDP 이사회에서 요구한 투명성 제고 조치를 수용하면 대북 사업 중단을 재고할 것이라고 밝힘
- UNDP는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가 UNDP 개발자금의 핵개발 전용 의혹을 제기한 이후,

- 3월 1일부터 북한에 대한 현금지급과 북한 정부를 통한 현지직원 채용 중단 등의 방침을 밝힌 바 있음

■ 개성공단 원산지 문제, 한미 FTA와 별도 논의(3. 7, 중앙일보)

-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 문제를 FTA 협정문에 포함하되, 구체적 규정은 별도 협의하는 방안이 추진 중
- 한국산 인정 범위와 특혜관세 대상 등은 북·미 관계의 진전 상황과 연계, 추후 논의
- 이 방안은 개성공단 문제를 FTA 논의에서 사실상 제외해 협상 속도를 높이기 위한 자구책으로 마련된 것으로 보임

■ 북한, 개성공단에 평양근로자 3천명 공급할 계획(3. 11, 연합)

- 남북 경협 시민단체인 남북포럼의 김규철 대표는 북한이 개성공단의 안정적인 인력 수급을 위해 평양 근로자 3천명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힘
- 김 대표는 11일 “북한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2월 정부와 공단 입주기업 측에 이런 계획을 전달하고 근로자의 숙소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해왔다”고 전함
- 현재 개성공단의 100만평에 달하는 1단계 공장부지에 300여개의 기업이 입주할 경우 8만명 이상의 북측 근로자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

■ 미국, BDA-미국은행 거래금지 결정(3. 14, 3. 19, 워싱턴 연합)

- 미 재무부는 14일 북한의 불법자금 거래혐의를 받아온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(BDA) 은행에 대한 제재조치로 미국 은행들이 BDA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결정
- 미국은 BDA를 ‘돈세탁 우려대상기관’에서 ‘돈세탁 대상기관’으로 공식 지정할 예정
- 미 재무부는 동결된 북한 자금(2,400만 달러 규모) 중 불법 또는 합법성 자금을 구분하여, 마카오 당국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짐
-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차관보는 19일 “북측과 BDA에 동결된 자금을 전액 반환(return)하기로 합의했다”고 발표
- 동결 해제된 북한 자금은 전액 인도적 사업에 사용하기로 합의